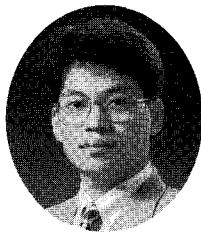


특별기고

환경친화기업의 의미와 현황



김종우

연합통신 경제3부 기자

I.

환경부는 지난 해 5월 「환경모범업소 제도」를 폐지하고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국제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환경친화기업」이란 기업이 환경규제치 준수에 그치는 소극적인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경영 및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기술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바로 환경친화기업인 것이다.

환경부는 동기부여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행정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일단 선정되면 지정기간내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를 면제해 허가과정의 시간과 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정기, 수시 지도단속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게는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신청시 우선순위를 적용하며 세제, 금융 등에서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및 사업장은 '환경친화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광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II.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위해 작년 3월 21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이어 6월에 '환경성 평가 및 개선계획서 심사방법 기준'을 제정하고 8월에 「환경친화기업」으로 두산제관 이천공장등 3개 업소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에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된 뒤 3월에 교수 44명, 연구원 24명,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환경친화기업 심사단'을 구성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환경성 평가와 환경성 개선계획 수립이 필수로 이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환경성 평가는 사업활동 및 공정개요를 일단 서류심사하며 이후 생산공정과 제품에 대해 설계, 생산, 사용, 사후처리 등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을 심사한다. 환경성 개선계획 수립은 기업이 환경개선 목표를 수립하고 공정개선에 따른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부산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품자체의 환경친화성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기업 환경성 개선계획의 구체적 실행방법과 투자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개선 활동,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관리 대책도 심사에 반영된다.

III.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절차는 크게 지정신청 후 심사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정절차를 보면 '환경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업체가 '환경성 평가 및 개선계획서'를 작성, 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지방환경청장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20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환경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심사단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를 가름하게 된다.

5월말 현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수는 14개이며 사업장수는 91개이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환경관리인. 1996. 6

된 기업은 94년 폐놀사건으로 극심한 홍역을 치렀던 두산그룹이 OB맥주 이천공장등 22개 사업장이 지정돼 가장 많고, LG그룹은 LG화학 울산공장등 17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이어 ▲ 삼성그룹 12개 ▲ 한전 10개 ▲ 한화그룹 7개 ▲ 지역난방공사 6개 ▲ 제일제당과 한라그룹이 각각 4개 ▲ 현대는 2개이며 선경, 삼양사, 한솔, 태평양 등은 각각 1개 사업장이다.

반면 10대 그룹중 대우, 쌍용, 한진, 롯데 등은 단 1개의 사업장도 지정되지 않았다. 또 그동안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실적이 많은 대우, 금호, 미원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각각 1개 사업장을 신청했으나 환경부 심사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IV.

환경부는 최근 현행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을 손질, 환경친화기업 지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이미 지정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받은 것으로 소급 인정했다. 그러나 심사내용은 대폭 강화해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자격 심사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환경부 국장급 이상의 간부 7명으로 된 사정위원회가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되며 친화기업 지정신청때 제출한 환경개선계획서를 매년 심사해 1년간의 환경개선 실적이 개선계획서상의 목표치를 밑돌 경우나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확인되어도 지정이 취소된다.

대신 까다로워진 심사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되도록 심사기간을 종전에는 신청후 50일 이내로 하던 것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업체당 동 업종의 특성상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기가 어려운 사업장은 동종업체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평가해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을 친화기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지정요건을 어겨 지정취소를 당하면 3년간 지정신청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지정여부를 가리는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로 탈락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6개월간 재신청을 낼 수 없도록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도입배경은 법정 환경기준치 이하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는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직접 생산을 담당하므로 환경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생산직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의 환경여건과 안전관리현황도 심사대상에 추가해 근로환경에 대한 평가도 실시기로 했다.

V.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도입배경은 법정 환경기준치 이하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는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직접 생산을 담당하므로 환경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또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도입이 기업의 이미지 향상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이득이 있다는 점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미국의 종합생활용품 업체인 '3M'이 지난 75년부터 92년까지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감축 및 누수량

절감으로 6억5천만달러를 절감한 사례다.

이와 함께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기 위하여 추진중인 '그린라운드'라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해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오는 98년까지 ISO 14000시리즈(환경관련 규격제정)를 마련할 예정이며 영국은 92년 환경관리체제에 관한 「BS 7750」을 제정한 바 있고 EU는 93 「환경관리감사규정(Eco-Management and Audit Regulation: EMAR)」을 제정하여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일본 환경청에서도 93년 「환경친화적인 기업행동 지침」을 제정해 기업들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유도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요구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된 것이다. ☛

▼ 환경친화기업 지정현황

순번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지정일	전 화 번 호
80	두산씨그램(주) (이천)	성기백	경기 이천 부발 고백리 7-2	'96.3.30	(0336)636-5800
81	LG마이크론(주) (본사)	이채우	경북 구미 구포동 624	3.30	(0546)469-0611
82	LG마이크론(주) (1공장)	이채우	경북 구미 공단동 141	3.30	(0546)467-0541
83	유공옥시케미칼(주) (울산)	윤대욱	경남 울산 남구 고사동 55	4.12	(0522)78-5501
84	한화-바스프우레탄(주) (여천)	이관용	전남 여천 화치동 373-15	4.12	(0662)80-7000
85	삼성전자(주) (수원)	김광호	경기 수원 팔달 매탄3동 416	4.25	(0331)200-1965
86	(주)삼양사 (울산)	김상용	경남 울산 남구 매암동 360	4.25	(0522)79-4527
87	(주)LG화학 (익산)	성재갑	전북 익산시 용제동 599	5. 3	(0653)830-4090
88	삼성전기(주) (조치원)	이형도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히 581	5.14	(0415)861-1251
89	현대전자 (이천)	김주용	경기 이천 부발 아미리 산 136-1	5.17	(0336)30-6270
90	(주)태평양 (수원)	이능희	경기 용인 기흥 영역 751-3	5.17	(0331)213-1511
91	삼성전기(주) (수원)	김광호	경기 수원 팔달 매탄3동 416	5.17	(0331)210-5056

* 환경친화기업지정현황중 1~79번까지의 업체명단은 지난 4월회보(52, 53쪽)에 게재되었으므로 생략합니다.